



## 미 증시, FOMC 재료 소멸 인식 등으로 강세

###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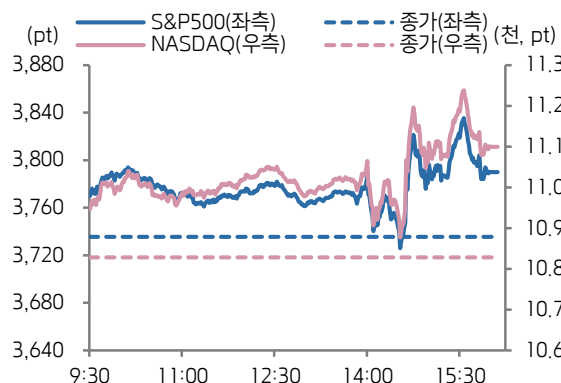
15 일(수) 미국 증시는 5 월 소매판매 등 실물 지표 부진에도, 6 월 FOMC 75bp 금리 인상 이후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안도감이 조성된 영향에 힘입어 상승(다우 +1.0%, S&P500 +1.5%, 나스닥 +2.5%, 러셀 2000 +1.4%)

전일 6 월 FOMC 에서 연준은 75bp 금리 인상을 결정하며 기준금리 목표치를 1.50%~1.75%로 상향조정. 올해 말 경제성장을 전망치는 3 월 2.8%에서 1.7%로 하향조정한 반면,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3 월 4.3%에서 5.2%로 상향조정.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75bp 인상은 이례적으로 큰 폭이며 이러한 인상폭이 일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달 금리 인상은 경제지표, 경제전망에 좌우될 것이며 50~75bp 인상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하며 7 월 FOMC 에서 50bp 와 75bp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음.

75bp 인상폭은 1994 년 이후 처음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 및 물가 안정에 대한 연준의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며 반등에 성공. 75bp 인상 가능성과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을 선반영하며 3.4%대까지 상승했던 미 국채 10 년물 금리는 3.3%대까지 하락, 2 년물 금리 역시 3.2%대로 하락. 추가적으로 ECB 가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로존 주요국 국채 금리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한 점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 업종별로 에너지 업종(-2.1%)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했고 경기소비재(+3%), 통신(+2.4%), 부동산(+2.3%)의 상승폭이 가장 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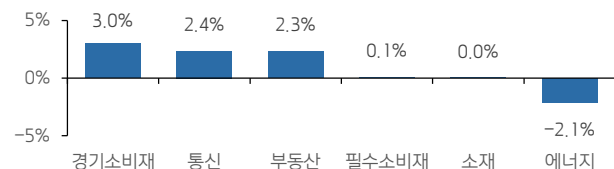
한편 주요 경제지표 부진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위축 우려를 높임. 미국 5 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3%(예상치 +1.0%, 전월치 +0.7%) 감소를 기록하며 5 개월만에 둔화. 소비 동향이 상품에서 서비스 소비로 이동했고, 자동차 판매가 전월대비 3.8% 감소한 영향에 기인. 6 월 NAHB 주택시장 지수는 67(예상치 68, 전월치 69)로 예상치를 하회하며 2 년만에 최저치 기록. 집계측은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택 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언급.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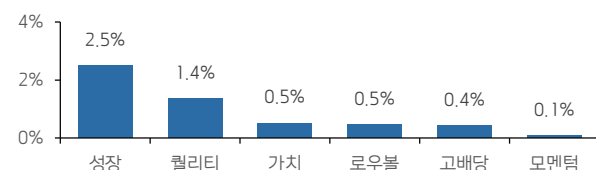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789.99	+1.46%	USD/KRW	1,290.40	+0.31%
NASDAQ	11,099.15	+2.5%	달러 지수	104.88	-0.61%
다우	30,668.53	+1%	EUR/USD	1.04	+0%
VIX	29.62	-9.39%	USD/CNH	6.67	+0.07%
러셀 2000	1,731.14	+1.36%	USD/JPY	133.88	+0.03%
필라. 반도체	2,737.55	+1.77%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379.74	+1.06%	국고채 3년	3.655	+10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769	+8.4bp
Eurostoxx50	3,532.32	+1.64%	미국 국채 2년	3.191	-23.6bp
MSCI 전세계 지수	600.30	+1.1%	미국 국채 10년	3.284	-18.9bp
MSCI DM 지수	2,525.88	-0.75%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17.87	+0.14%	WTI	115.31	-3.04%
MSCI 한국 ETF	61.00	+0.07%	금	1819.6	+0.3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7%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3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1.07%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78.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2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체크 사항

1. 6월 FOMC 이벤트 소화에 따른 단기 안도렐리 출현 가능성
2. 원/달러 환율 급락 및 고점인식에 따른 외국인 순매도세 진정 가능성
3. 낙폭과대 성장주들의 주가 반등 탄력 강화 여부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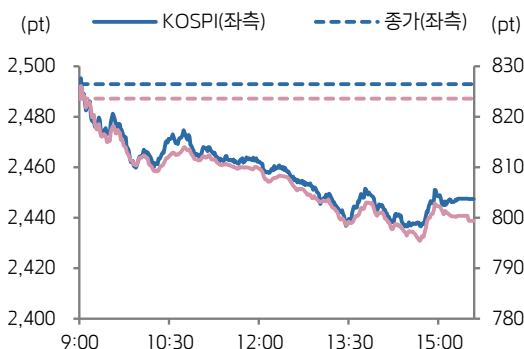
6월 FOMC 에서 연준은 75bp 금리인상(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점도표상 2022년 금리 전망치 중간값을 기존 1.875%에서 3.375%로 큰 폭 상향조정 했으며, 7월 FOMC에서의 75bp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놓는 등 지난 회의에 비해서 한층 더 매파적인 스탠스를 강화시킨 것으로 보임. 그러나 주식시장은 6월 75bp 인상 가능성을 이미 지난 10일 미국 소비자물가 발표 이후 연이은 주가 조정을 통해 반영해왔던 만큼, 실제 75bp 인상 단행 후에는 이를 재료 소멸 혹은 불확실성 완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물론 지난해 하반기 FOMC 이후부터는 시장의 FOMC 당일 주가 반응과 다음날의 주가반응이 상이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었기 때문에, 향후 1~2 거래일 동안 시장이 FOMC 결과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존재. 더 나아가, 파월의장이 FOMC 회의 직전에 나온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소비자물가,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등)가 이번 금리인상 결정에 이례적으로 영향을 가했다고 밝힌 점에서 유추해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연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인플레이션 데이터 후행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시사. 이와 연장선 상에서 5월 소매판매 부진(-0.3%MoM, 예상 +0.1%), 6월 FOMC 회의 이후의 기대인플레이션 하락한 데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수요 완화, 연준 금리인상 등이 미래의 물가 압력을 완화시키고 있다는 점은 당분간 증시 환경이 중립 이상의 수준으로 조성될 것임을 시사.

정리하자면,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의 방향성이 중요해졌으며, 7월에 예정된 6월 소비자물가(피크아웃 재확인 전망), 7월 FOMC 이벤트(75bp 인상 전망)를 소화해야 완전한 안도렐리가 나올 수 있다는 당사의 기존 전망을 유지. 다만 6월 남은 기간까지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대형 매크로 이벤트가 부재하며,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진입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주요국 증시는 주가 복원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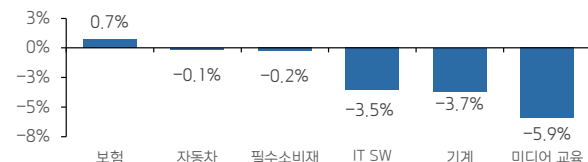
이를 감안 시 전거래일 투매현상 출현으로 연저점을 경신했던 국내증시도 금일에는 연준의 6월 자이언트스텝 재료 소멸 인식, 원/달러 환율 급락(현재 역외에서 10원 이상 하락 중) 등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전망. 금일 전반적으로 낙폭과대 성장주들이 주가 반등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전일 발표된 중국의 주요 실물 지표들이 일제히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의 부양정책에 따른 경기 모멘텀 개선이 유효하다는 점은 금일 대중 수출 관련 업종들의 주가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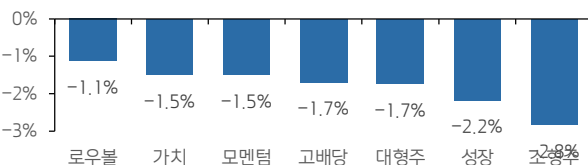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Enguide, 키움증권

---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